

HS효성, 정기 임원인사

‘50년 효성맨’ 김규영 회장 선임

송성진·양정규 등 10명 임원 인사
조현상 부회장 가치경영 지론 반영
“새로운 진용으로 글로벌 시장 대응”

HS효성이 김규영 전 효성그룹 부회장을 HS효성그룹의 회장으로 선임했다.

HS효성은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송성진 트랜스월드 PU장과 양정규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대표이사 전무를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신규 임원 2명을 선임하는 등 총 10명의 임원 인사를 9일 발표했다.

김 전 부회장의 회장 선임에 대해 회사는 “HS효성 가족들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누구든 역량을 갖추면 그룹의 회장이 될 수 있다”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평소 지론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오너가 아니어도 가치를 극대화하는 준비된 리더가 그룹을 이끌어야 한다. 그것이 곧 가치경영이다”라고



김규영
HS효성 선임 회장

집단지성을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김규영 HS효성 회장 선임은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가치경영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사로 평가된다.

늘 우리 곁을 지켜주는 거목과 같이 50여년간 효성그룹을 지켜오며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리는 김규영 회장은 1972년 효성그룹의 모태기업인 동양나이론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연양공장장, 안양공장장, 중국 총괄 사장, 효성그룹 CTO 및 기술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아울러 스파텍스 개발을 포함한 섬유기술 확립과 기술품질 향상

에 기여했고, 2017년부터 8년간 효성그룹 지주사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송성진 부사장은 현대 경영의 중요한 화두인 공급망 안정화와 물류사업을 도맡아 HS효성그룹의 도약에 기여하고 있다. 물류사업의 수장으로서 글로벌 사업과 해외 고객이 많은 HS효성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양정규 부사장은 HS효성의 주요 사업군 중 하나인 AI·DX 사업을 선도하며 다년간 실적을 내왔다. 국내 하이엔드 스토리지 시장 11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독보적 입지를 구축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HS효성그룹의 AI·DX 사업 부문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HS효성은 새로운 진용으로 통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조 부회장이 강조해 온 ‘가치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SK스피드메이트, MSI실·MPI실 신설

이환용 신임 대표 선임 등 임원 인사

자동차 정비 기업 SK스피드메이트가 2026년 정기인사 및 조직 개편을 통해 이환용 신임 대표(사진)를 선임했다.

SK스피드메이트는 이 신임 대표 선임을 비롯해 MSI실(Mobility Service Innovation)과 MPI실(Mobility Platform Innovation)을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신임 대표는 지난 2005년 SK네트웍스에 입사해 전략·기획 및 회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지난 2024년에는 민팅 대표로 발탁돼 중고폰 거래사업 안정화와 미래 성장 기반 강화에 힘써왔다. 내년에는 SK스피드메이트 대표를 겸함으로써 자동차 관리 비즈니스 모델의 효율성과 혁신성 향상을 추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표 선임과 함께 SK스피드메이트는 영업 실행력 강화 및 사업별 책임 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정비사업 중심 MSI실과 부품유통 및 ERS사업 중심 MPI실을 신설하는 임원 단위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2024년 9월 SK네트웍스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할해 출범한 SK스피드메이트는 ‘별빛정비’와 고객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펼치는 동시에 SK엔무브, 카카오, 한국타이어, BMW 등 유력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 관리사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자동차 데이터 기업인 DAT로부터 AI 자동 견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카카오의 AI 에이전트 카나나와 연동되는 ‘스피드 오토케어’를 선보이는 등 기술 중심 사업모델 개발도 한창이다.

SK스피드메이트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사업 안정화와 함께 혁신을 이뤄갈 수 있는 인물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으며, 국내 최고의 자동차 관리 기업으로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경영층과 구성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전자 “‘원 UI 8.5’ 체험해보세요”

베타 프로그램 운영… AI 기능 강화

삼성전자가 ‘원(One) UI8.5’의 베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원 UI 8.5’는 기존 원 UI 8을 기반으로 AI기능과 기기 간 연결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원 UI 8.5’ 베타 프로그램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폴란드 ▲인도 총 6개국에서 갤럭시 S25·S25플러스·S25 울트라 사용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베타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사용자는 갤럭시 폰 내 삼성 멤버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베타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사용자 피드백을 분석·보완해 ‘원 UI 8.5’ 공식 버전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원 UI 8.5’는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더욱 편리하게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AI 기반 이미지 편집 기능인 ‘포토 어시스트’는 이미지 편집 과정의 번거로움을 크게 줄였다. ‘생성형 편집’, ‘인물 사진 스튜디오’ 등을 활용해 이미지 편집 시 매 단계마다 저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연속적으로 이미지 편집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갤럭시 폰과 주변의 다양한 기기와의 연동 기능도 강화했다.

갤럭시 폰을 활용해 주변의 오디오 기기에 사용자의 음성을 그대로 송출하는 ‘오디오 방송’ 기능을 추가했다. 폰과 주변의 ‘LE 오디오’ 기기를 연결한 후 사용자가 폰에 내장된 마이크로 말을 하면 연결된 LE 오디오 기기에서 해당 음성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또 ‘저장공간 공유’ 기능을 활용하면 태블릿과 PC 등 다른 갤럭시 기기의 파일을 폰으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모비스, 30여종 모빌리티 융합기술 선보인다

HWD 기술 ‘CES2026’ 혁신상
내년 CES서 엠빅스 7.0 등 소개

현대모비스가 모빌리티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기 위해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솔루션 등 미래 핵심 제품 분야 선도 기술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내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30여종의 모빌리티 융합기술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이번에는 사전 초청된 고객사를 대상으로만 프라이빗 관으로 부스를 운영해 북미지역 고객사를 초청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전장·전동화·새시안전 등 핵심부품 각 분야의 첨단기술을 선별해 글로벌 고객사에 집중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의 콕핏 통합 설루션 엠빅스 7.0에 탑재한 홀로그래픽 윈드월드 디스플레이(HWD)는 지난달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로부터 ‘CES 2026 혁신상’을 수상했다.

HWD는 현대모비스가 독일 광학기업 자이스와 손잡고 세계 최초로 홀로그



현대모비스가 CES 혁신상을 수상한 ‘홀로그래픽 윈드월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 ‘콕핏 통합설루션 M.VICS 7.0’.

래픽 필름을 활용해 개발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로 전면 유리창을 초대형 디스플레이로 활용한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운전자는 고개를 돌려 계기판이나 다른 조작계를 확인하지 않아도 주행 정보가 전면에 나타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진다. 동승자석에는 운전자와 화면을 분리해 동영상이나 게임과 같은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시청할 수 있게 했다. 운전자석에서는 동승석의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설계해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도록 안전성을 강화했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HWD 기술을 글로벌 주요 고객사와 기술 고도화를 위해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029년 양산을 목표로 현대모비스의 주력 수주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 현대모비스는 내년 열리는 CES에서 엠빅스 7.0과 전자식 제어장치인 X-바이 와이어 기술을 선보인다. X-바이 와이어는 기계적 연결 없이 전기 신호로 조향과 제동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이와 함께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저전력 디스플레이, 고성능·보급형 전기차 구동시스템 등 전장·전동화·새시안 분야의 신기술을 고객사에 선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

금호타이어, 함평 신공장 건설 본격화

전남도-함평군 투자협약 체결

금호타이어가 2027년까지 6609억원을 투자해 함평 신공장 건설을 본격화한다.

금호타이어는 9일 전남도와 함평군과 함평신공장 건설에 대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연간 530만본 생산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2028년부터 본 가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이상의 함평군수,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임완주 경영기획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내용에 따라 전남도와 함평군은 금호타이어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행정

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함평 신공장 건설은 금호타이어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적 투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함평신공장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라는 가치를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방사청 계약… 장애물개척전차 공급

현대로템이 육군 전방 부대와 해병대에 장애물개척전차(K600)를 공급한다.

현대로템은 9일 방위사업청과 2500억원 규모의 장애물개척전차 2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납기는 오는 2029년 12월 31일이다.

장애물개척전차는 지뢰제거쟁기와 굴삭팔 등을 이용해 전방의 지뢰와 낙석 등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아군의 기동로를 확보하는 전투공병전차다.

이 전차는 차체 전면에 있는 쟁기로 지면을 갈아엎어 매설 지뢰를 찾아내고, 자기감응지뢰 무능화장비에서 나오는 자기장으로 지뢰를 폭발시킨다. 차체 상부의 굴삭팔은 파쇄기를 장착해 낙석을 파괴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옮기



K600 장애물개척전차.

/현대로템

는 크레인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국방력 강화에 전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차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장애물개척전차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군의 피드백을 경청해 전차 양산에 반영해 국방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